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051)933-7133



마음까지 치유하는 부산성모병원은 1951년,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부산 초량동에 성분도 자선병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는 열악한 환경과 의약품,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수녀님들은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함께 모여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셨다고 합니다. 피난민 속에서도 병자를 돌보던 봉사 정신과 하느님 나라 전파의 설립 이념은 지금 부산성모병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부산 초량동에서 남구 용호동 지금의 부산성모병원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지 17년 된 부산성모병원은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을 의료설비와 사명감

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2009년 보건복지부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중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말기암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도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입원형 호스피스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팀은 가톨릭 의료기관 이념 실천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



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기관 연혁

일시	내용
1996년	호스피스기본교육 실시 산재형호스피스 시작
2005년	호스피스 병실 운영
2010년	완화의료센터로 승격
2016년	가정형호스피스 시작

2. 인력 및 시설현황

1인실 5개, 2인실 1개, 3인실 3개, 4인실 2개로 24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17명, 사회복지사 2명 의사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입원 전 외래 진료를 통한 진료과장 면담 후 병동 내 상담실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비용, 입원절차, 병동안내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 현황

1) 돌봄 프로그램

생일, 기념일 등의 이벤트, 명절과 부활 및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집밥데이와 게임 등으로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 요법 프로그램

환자와 가족들이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명상, 리본공예, 음악요법, 미술요법, 창, 무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별가족 프로그램

사별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슬픔과정 극복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만남, 편지, 전화, 방문을 하여 돌보며, 방문일에는 꽃이나 화분을 준비하여 사별가족들을 지지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4. 홍보

통증캠페인이나 완화주간행사를 통해 호스피스를 알리고 있으나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여 직원 및 본당신자들에게 강좌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